

내일로 나아가는 '완도 고금고' 글로벌 프로젝트 눈길

태국 파타야 프라서숙학교와 MOU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기 발전 계획 미래역량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완도 고금고교(정병영 교장)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2일 고금고에 따르면 고금고는 지난 8일부터 12일(3박 5일)까지 태국으로 글로벌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태국 파타야 프라서숙 학교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온·오프라인 교류 협약도 맺었다.

고금고는 이번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문화 소외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체험학습은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중 특별기획으로 '향후 10년간 글로벌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 일회성 체험학습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글로벌(Glocal) 교육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글로벌 체험학습은 학교발전기금과 전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사업 지원으로 운영된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남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실시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고금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금고는 학년초부터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와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

태국 파견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태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중언어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 한국, 태국, 베트남, 중국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조사해 4개국어로 집필한 '4개 국어 익힘책'을 출판했다.

이번 글로벌 체험학습에 참여해 통역을 담당한 고금고 중도입국생 1학년 박진우(아르노 아티팩트)군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서 기쁘고 두 학교의 성공적인 교류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서 "한국말이 서툴러서 통역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 같아 기쁘고 이런 기회를 준 고금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문화 정책 사업 업무담당자 나민지 교사는 "태국은 현재 태국 출신 블랙핑크 리사의 성공으로 K-pop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고금고에서도 태국 파타야 프라서숙 출신 박진우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지원, 다문화 박람회 등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만큼 양 학교의 관심과 노력 속에서 친근함을 가지고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과 의의를 밝혔다.

정병영 고금고교장은 "평소 학교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학부모, 동문회, 지역사회, 장애인 장학회 그리고 전남도교육청 덕분에, 특히 매년 1000만 원을 10년간 후원하기로 한 손형민 동문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글로벌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



완도 고금고교가 최근 태국 프라서숙 학교를 방문해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태국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 고금고교 제공>

고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며, 지역(local)을 넘어 세계(global)로 나아가는 미래사회의 글로벌(glocal)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교류 활동으로 각국의 전통놀이 체험활동, 프라서숙 학생들의 K-pop 공연, 태국 학교 급식 체험 등이 진행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광주시교육청 '실력·인성·글로벌·디지털' 집중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4대 영역 16대 중점 사업 추진

'실력이 쌓여 본질이 된다, 우리는 미래로 간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025년 광주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을 비롯해 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광주교육이 추진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4년 주요 성과 소개, 이정선 교육감의 '실력이 쌓여 본질이 된다. 우리는 미래로 간다!' 주제 강연, 2025년도 광주교육 5대 시책 등 주요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 5대 주요 시책은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 ▲희망사

다리가 되는 공정교육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 등이다.

또 2025년 광주교육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교육의 본질로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 16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실력'을 위해 다양성을 품은 수업, 창의적 독서교육,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생각을 키우는 수학·과학교육 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춘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간 강화,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기반 세계로'를 위해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활성화, 다같이 어울리는 다문화교육, 5·18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0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2025 광주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정신 세계화,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육협치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위해 AI·디지털 역량 강화,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 스마트 기반 학교 안전 강화를 추진해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 섬마을 고교, 서울대 의대 합격 경사

'도초고' 개교 47년만에 처음... 지난해도 희망 대학 진학 다수

학원 등 사설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섬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안군 등에 따르면 도초고등학교 3학년 문정원(18)양이 2025학년도 서울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최종 합격했다. 개교 47년 만의 첫 서울대 의대 합격이다. 전남 지역 70개 국립고교 중에서도 최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또 이번 입시에서 모든 학생이 응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초고는 2024년 대학 입시에도 한양대 3명, 동국대, 흥익대, 인하대, 숙명여대, 전남대의대, 전남대 약대, 한국외대 등 대부분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높은 성적을 보였다.

그 동안 도초고는 서울대 7명을 비롯해 육군사관학교,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흥익대, 가톨릭대 등 주요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키며 시선을 끌었다.

도초고는 목포항에서 54.5km 떨어진 도초도에 자리 잡고 있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없어 학생들은 매일 뱃길로 50분을 오가며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초고는 이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왔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기숙형 고교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자율형 학교로 선정됐다. 2015년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학교 선정에 이어 올해 3월부터는 자율형 공립고 2.0 체제로 전환하며 교육혁신

을 가속했다. 도초고는 섬이라는 특수 환경을 감안해 교직원 모두가 연구·토론해오면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중심의 다양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와 일요일 부족한 과목을 집중 지도하는 등 특색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안교육에 신안 박우량 군수의 특별한 관심도 기반이 됐다.

신안군은 도초고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억 원씩을 지원했고, 2008년 '농산어촌 우수교육사업'이 '기숙형공립학교 육성사업'으로 전환되자 도초고가 최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기숙형공립학교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도초고 전임제 교장은 "섬이라는 특수적인 부분 때문에 전 교사들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매일 연구, 토론하면서 학생들 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 동안 신안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오늘에 명문고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합격 소식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란 자신감을 심어주고, 섬 지역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교 주도 독서인문교육 강화

김대중 독서교실·청소년 작가교실 운영...학교도서관 지원센터 확대

전남교육청이 학교 주도의 글로벌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책 읽는 전남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인문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독서인문교육 전담팀을 신설, '책으로 여는 아침' '독서인문학교' '나도 작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층 높아진 독서 열기를 김대중 독서교실과 청소년 작가교실 등으로 확장, 한 차원 높은 전남만의 독서인문교육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대중 독서교실은 평화를 실천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독서인문교육 특화 교실로 독서와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작가교실에서는 공생의 가치를 이야기 한 한강 작가의

시대정신과 지역 인문 특화를 연계한 독서와 글쓰기 수업이 이뤄진다.

도 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준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전남의 인문학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와 지역이 자율권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독서인문교육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